여야 '검찰개혁법안' 갈등 재점화

국힘,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 번복
윤 당선인도 반대 입장 밝혀
민주 "국회 단독 처리 강행" 예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한때 법안 처리에 '훈풍'이 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했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수적 우위에 기대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당 일각에서는 중재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원안 통과' 카드까지 꺼내 드는 상황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잡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재협상'과 '단독 통과 불사'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를 거론한데 이어 이날 합의 사흘 만에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공식 거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놓고)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재안 중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놓고 여론의 저항이 거세자 합의 당사자였던 권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협상'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원내지도부가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한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윤 당선인이 이날 검찰개혁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모아달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남긴 말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었을 만큼 윤 당선인의 의중 또한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는 일제히 검수완박 중재안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취급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단독 통과를 예고하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단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되, 여야 간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로 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 합의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당초 제출했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광주시당, 광역의원 비례 당내 경선 투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 투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25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장)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공천신청자 경선 투표를 26일과 27일 이틀간 실시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경선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을 통해 국민의힘 광주시당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http://kevoting.co.kr)로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 경선 참여자는 4명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투표 방법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개인별 접속 링크(URL)를 터치하여 투표하면 된다.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 이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결정해 오는 5월 2일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장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17일 후보자 자격시험을 거쳐, 19일 면접심사를 실시해 경선투표 후보를 확정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광역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입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박병규 예비후보 '광산 3대 비전·3대 구정 목표' 발표

박병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광산의 혁신을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회복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잃어버린 3년 여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에서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드림(Dream) 광산, 꿈을 함께 실현하는 광산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산 ▲새롭게 발전하는 광산을 3대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어 "상생형 일자리 도시, 함께 성장하는 도시, 구민이 주인인 도시를 3대 구정 목표로 삼아 새로운 광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대표 공약으로 뉴딜경제특구광산, 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과 송정역·금호타이어 이전부지 일대 복합환승지구 조성, AI인재육성종합고등학교 신설 등을 꼽았다.

/최권일 기자 cki@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안심하는 학교 만들겠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학교급식 단가를 높여 GMO·방사능·농약·첨가물·항생제 등 5무(無) 급식 전면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우리 아이 내집 앞 마을돌봄'을 하겠다"며 "집과 가까운 마을에 돌봄 시설을 만들어 마을 주민 모두가 아이를 돌보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유치원까지 무상 교육 전면 확대, 장애학생 전 생애 학습·생활·진로 전반 지원, 유치원·초등학생 입학 준비 바우처 신설 지원, 에듀버스·에듀택시 등 확대 운영을 약속했다.

그는 "오로지 정책 대안으로 전남교육의 희망을 만드는 깨끗한 교육감 선거를 치르겠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민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민준 나주시장 예비후보 '신 영산강 경제 공약' 발표

이민준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신 영산강 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나주는 영산강의 중심지로 과거 호남경제를 이끄는 근간이었다"면서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주경제의 근간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산강 연관 지자체와 연대해 영산강 하구언 개방 ▲뱃길 복원, 영산포구 재정비 통해 수산물 집결지 조성 ▲노봉산 4계절 테마공원 조성 ▲영산강 자연생태장 교육장 조성 등을 발표했다. 또한 ▲남평 강변마을 주변 전통 음식거리 조성 ▲지석강 관광 테마 조성(레일바이크, 수변 물놀이장) 등 지석강 관광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머무르고, 체험하고, 활력이 넘치는 영산강 경제를 나주 미래 백년의 먹거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김한종 장성군수 예비후보 "장성에 아열대 식물원 건립"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출마 예정자인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25일 "장성에 대규모 아열대 식물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성은 광주와 인접해 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다"면서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와 연계해 사계절 꽃과 식물이 넘쳐나는 테마정원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필암서원, 백양사, 장성호, 황룡강 등 장성 고유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막대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여기에 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유치를 통해 장성 관광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